

휴가 끝나자...광주 산업계, 임단협 진통 경제 위축 우려

금호타이어 노조, 공장 점거농성...곡성·평택공장 확대 가능성 기아 노조, 조합원 파업권 확보...20일까지 사측과 교섭키로

광주지역 대형사업장들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생산 재개에 나섰지만, 동시에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재개되면서 주요 산업계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사측과 임단협 갈등을 빚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조는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고, 기아 노조도 파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측과 집중 교섭에 나서고 있다. 지역 주력 산업계가 임단협 진통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7일 지역경제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사측과 임단협 갈등을 빚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날 오전 광주공장 내 크릴룸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원 20여명이 이날 오전 5시50분께 2공장 크릴룸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노조 간부 1명이 크릴룸 안으로 들어가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크릴룸은 타이어 생산 공정의 초기 단계인 압연 공정을 하는 곳으로, 가동되지 못하면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조 측은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사측과 재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18일 이후에도 사측의 변화된 입장이 없다면 투쟁을 곡성과 평택 등 전 공장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여기에 노조는 사측이 농성장에 일반직을 투입하

거나, 시설 보호를 요청해 경찰이 투입될 경우 전면 파업 투쟁에 나서겠다는 경고까지 하고 나선 상태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달 25일 노사 협상을 통해 임금 동결과 국내공장 고용안정 및 미래비전, 광주공장 이전, 우리사주 분배(사측 250억원 출연), 하계 휴가비 인상(20만원) 등을 잠정 합의했지만, 노조원 찬반 투표에서 51.6%가 합의안에 반대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잠정 합의안은 어려운 회사 상황으로 논의의 폭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노사가 도출할 수 있는 '최선의 안'으로, 노조가 회사 경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라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사측은 "지난해 단체교섭을 올해 초 합의하며 통상임금 인상분 적용(8.3%)과 격려금 100만원 지급 등 수 백억 원의 추가 비용이 이미 발생한 상태

에서 또다시 추가적인 일임금 등은 무리한 요구"라며 "회사 경영환경과 실정을 외면한 조합의 불법행위는 갈등과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은 불법 점거 농성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아 노사 역시 지난 6월부터 교섭을 이어왔지만 아직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지난 12일 9차 본교섭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20일까지 집중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9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성과급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정년 연장(최대 만 65세), 노동시간 주 35시간으로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은 정년 연장 등의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별도 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아 노조는 지난달 20일 열린 8차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으며 교섭결렬을

선언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조합원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 73.9%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당장 파업에 나설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파업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광주공장의 주력 생산 차종인 스포티지 신형이 출시돼 사전 흥행을 거두는 등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노사 갈등으로 인한 생산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역경제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지역경제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형사업장의 파업은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지역경제를 위해 노사가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농협·저축은행 신용대출 한도 연봉수준으로 축소될 듯

시중 은행뿐만 아니라 농협과 신협,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7일 "풍선포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로 (은행권과) 방향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만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제2금융권을 그대로 둔다면 은행권에 가려던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유입되는 풍선포화가 생길 수 있다"며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서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 방침을 예고했다. 이어 "아직 각 중앙회에 신용대출 축소 요청을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제2금융권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 방향은 은행권과 같이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권에도 조만간 신용대출 축소 기준을 설정해 당부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13일 시중 은행 여신 담당 임원과 회의를 하고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2배에서 연소득 이내 수준으로 축소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는 조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연소득의 1.2~1.8배 범위다. 예를 들어 신협은 1.8배까지, 농협은 1.5배까지 신용대출 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액 1억 원의 한도로 설정한 곳도 있다.

은행권의 한도는 연소득의 2배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제2금융의 가계대출 잔액은 5.6조원 급증, 작년 같은 달의 3배를 웃돌았다. 특히 상호금융권은 농협을 중심으로 2조8000억원이 늘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은행의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풍선포화와 공모주 청약 등 자산투자 열기 속에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연합뉴스



추석 선물 '골드바' 어때요 17일 (주)광주신세계 직원이 본관 1층에서 추석 선물용 '신세계 골드바'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9월26일까지 200만원 이상 골드바 구매 고객에게 구매액의 1% 상당을 상품권으로 주고, 100g 중량 구매 때는 미니 골드바 1개(1.875g·반돈)를 증정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비트코인 2% 하락

17일 오후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2% 가까이 하락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 현재 비트코인은 5399만5000원이다. 24시간 전보다 1.95% 내렸다.

한때 5400만원 중반에 거래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 폭이 커졌다.

이날 오후 3시에 거래 지연이 종료(상장 폐지)될 사이버베인은 이 시각 개당 17.00원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36.42% 급락했다.

사이버베인은 이날 한때 개당 80원을 넘기도 하는 등 급등락했다. 사이버베인의 최근 24시간 거래대금은 602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롯데아울렛 수완점 '키즈&패밀리 전문관' 개장

'모음키즈' 등 입점 고급화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은 오는 20일 3000㎡(900여 평) 규모 아동 전문 특화매장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아동 특화매장 '키즈&패밀리 전문관'은 기존 매장보다 규모를 2배 넓혀 점포 3층에 마련된다. 아동 의류와 침구, 구구, 완구를 진열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아동 의류 업계의 명품이라 불리는 브랜드를 한데 모은 '모음키즈'와 '아가방플렉스' 등을 입점해 고급화를 도모했다.

아동 주방용품 브랜드와 인기 만화영화 브랜드

'디즈니' 침구 상품도 만날 수 있다.

매장 한 가운데에는 어린이들이 교구를 체험할 수 있는 '동심마루'가 마련된다. 이곳은 직접 그림을 그리는 '드로잉 카페'와 식재료로 오감을 자극하는 '쿠킹 놀이터' 등으로 구성됐다.

롯데백화점 광주수완점은 주변 상권 분석을 통해 매장 개편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수완동) 전체 인구 가운데 13세 이하 아동 인구는 21.0%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광주 평균 비율(8.6%)의 2배를 웃돈다. 롯데아울렛 수완점의 올 상반기 아동 매출은 지난해보다 23.3%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시간만에 44만명 신청

첫날 66만명 신청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접수 첫날인 17일 8시간 만에 44만 명 넘는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자금 대상자 133만4000명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를 시작했다.

첫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7000명이 신청 대상이다.

이 중 44만2604명이 오후 4시까지 1조1132억 원을 신청했다. 낮 12시10분부터 오후 4시까지 18만8623명에게 1인당 40만~2000만원씩 5138억원이 지급됐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6~12시 신청분은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중기부는 이날 지급 금액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3143.09 (-28.20)
코스닥	1011.05 (-29.73)
금리 (국고채 3년)	1.402 (-0.005)
환율 (USD)	1176.30 (+7.30)

자산·공제 3,000억 달성 기념 경품 대전

■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2020년 출자금 3.0% 배당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담보대출 특판(100억) 최대한도 80% 최저이율 3.5%

대출상담 환영
 집단대출(중도금, 잔금) 관리형 토지신락 사업비 대출 전세(임차)자금 대출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총장지점 T.223-7217(충장로5가 입구)

신축사옥 임대문의 환영

※임대업종: 한방병원, 병의원, 커피숍, 초밥전문점 등